

최강희 감독 “스트라이커 고립 막아라”

29일 월드컵 최종예선 앞두고 영암서 본격 훈련

“쿠웨이트, 까다롭지 않지만 개인 능력 경계해야”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29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축구 대표팀의 최강희(52) 감독이 ‘스트라이커 고립 막기’와 ‘효과적인 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영암에서 소집돼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최 감독은 “쿠웨이트가 어떤 전술로 나올지 연구해 놨다”며 2~3개의 전술을 활용해 쿠웨이트를 격파하겠다고 밝혔다.

쿠웨이트가 치른 조별리그 3경기에 대한 비디오 분석을 끝낸 최 감독은 “양쪽 측면을 통해 파고든 뒤 새도 스트라이커가 파고드는 전술을 많이 쓰고 있다”며 “까다로운 팀은 아니지만 선수 개인의 능력은 괜찮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골을 터트리면 쿠웨이트도 전면 공격에 나설 것”이라며 이럴 때 수비진을 살짝 내려 방어를 하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작전을 쓰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쿠웨이트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 감독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할 전술을 짜는 데 부심하고 있다.

최 감독은 “양쪽 측면에 빠르고 파괴력이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게 아쉽다”며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수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야 최전방 공격수가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격뿐만 아니라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반칙으로 상대의 흐름을 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공격과 수비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최 감독은 “휩스나 중앙에서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면 치

명적이다. 경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반칙으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25일 오후 2시·전주월드컵경기장)과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에서 대표팀은 4-4-2 전술을 기반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감독은 “투톱을 세우든 원톱을 세우든 전방 공격수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전북에서 투톱을 세울 때도 두 명의 공격수를 종(縱)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에 두 명의 미드필더를 포진하면 수비적으로 안정되지만 공격 시에 상대 진영에서 훌러나오는 볼을 따내기 어렵게 된다며 4-2-3-1 전술보다 4-4-2 전술에 기반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런던행 확정 짓겠다”

홍명보호 최상 컨디션 만들기 ‘올인’

22일 오만전 앞두고 첫 훈련

울립피 본선행의 최대 고비인 오만전(22일)을 앞둔 울립피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다.

홍명보(43)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오후 5시(현지시간)부터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 내 보조 축구 경기장에서 한 시간 가량 훈련했다.

이날 낮 두바이 할공전으로 무스카트에 도착한 선수들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 속에 달리기와 미니게임 등을 위주로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다.

처음 30분간은 몸풀기를 하고, 나머지 30여 분 동안 솔라잡기와 패스연습을 접목한 게임을 했다. 막판에는 홍 감독과 코치진까

지 솔라잡기에 가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훈련이 끝났다.

선수들은 전날 적은 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80여 분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자체 경기를 소화했다.

홍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는 물론 심적인 컨디션을 최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두바이에서 무스카트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선수 전원이 마스크를 쓰게 했다.

홍 감독은 “어제 자체 경기하고 오늘은 중요한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 회복훈련에 중점을 둘다”며 “정신적인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시즌 7호골…셀틱 우승 확정

스코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국가 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3·셀틱)이 두 달 만에 골 몇을 봤다.

기성용은 1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이스터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이버니언과의 2011-2012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셀틱이 4-0으로 앞선 후반 32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그는 페널티지역 왼쪽에 있는 미드필더 크리스 코먼스에게 패스하고서 페널티지역 중앙을 돌파했고 다시 들어오는 크로스를 슈팅해 골망을 훔들었다. 강력한 크로스가

순식간에 다리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깊숙에 행운의 골로 비치기도 했다.

기성용은 이로써 올 시즌 리그에서 6골(4도움)을 쌓았다. 작년 9월29일 우디네세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홈경기에서 더뜨린 골을 포함하면 시즌 7호째다.

기성용은 오랜만에 공격포인트를 올려 오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쿠웨이트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셀틱은 하이버니언을 5-0으로 완파하고 사실상 올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메시 한 경기 4골 폭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이 팀값을 과시했다.

메시는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스

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3라운드 밸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뽑는 눈부신 활약을 펼쳐 팀의 5-1 역전승을 이끌었다.

메시의 활약으로 바르셀로나(바르사)는 스페인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1위 레알 마드리드(20승1무2패·승점61)에 승점 10 점 뒤진 2위(15승6무2패·승점51)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우승 향해 가라”

20일 강원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2012 월드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한국과 중국 경기에서 한국 노병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미추홀기 사격 개인 은·단체 동

광주체육중이 미추홀기 사격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 최보람이 최근 인천시립 사격장에서 끝난 제13회 미추홀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남중부 공기 권총에서 563점을 기록,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던 최보람은 전국대회 메달행진을 이어가며 올 시즌 소년체전 전장을 밝혔다.

체육중은 최보람·이경민·강동완·공민재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는 1658 점을 쏘며 3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매특자

▶ 투자금 1억원
월 200만원 수입, 법적보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분할 합병 공고

2012년 2월 18일 주식회사 한일기전(갑)과 주식회사 승단전역(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장50%의 2 이익에서 구매하는 회사 분할함에 따라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경기·광주·부산·부산·부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합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계약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이전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본합동상 등록번호 : 전기공사업-00859호

2. 본합동법 예정일 : 2012년 3월 21일

2012년 2월 21일

(갑) 주식회사 한일기전
의상사 서동로 19

대표이사 하재기

(을) 주식회사 승단전역
정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18

대표이사 주명숙

해산 및 재권재출 공고(2차)

본 회사는 2012년 1월 16일 총주주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체계화된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제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에 이의 및 그 제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사무실임대

3층 120평 분할 가능

나주시정 문화재단 삼성빌딩

연락처 : 010-9217-7570

분실

양수어울
수표번호 : 자가0246186

액면금액 : 원금 90,000,000원정

발행일 : 2011년 12월 23일

지급일 : 2012년 2월 20일

지급장소 : 주식회사 광주은행

영산강 녹색지점

최후소지자 : 범일인터넷스토리주식회사

상기이름을 분실공고함.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한일기전
의상사 서동로 19

대표이사 하재기

(을) 주식회사 승단전역

정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18

대표이사 주명숙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 21일

주식회사 두드림

광주 동구 정동 81-1

청산인 임 채 문

2012년 2월